

문화광장



홍정호
한국관악협회 제주지회장

좌평(左平) 도동음률(徒冬音律) 탐라인은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다. 662년 탐라를 신라에 넘긴 탐라군주의 이름이다. 도동음률(徒 무리 도 동 겨울 동 흡 소리 음律가락 룠). 추운소리의 음율을 가진 무리란 뜻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이름에서 음악을 다루었던 군주였지 않았을가 라는 가설을 펴게 된다.
탐라악(度羅樂)은 731년 속일본기에 기록된 탐라음악가 62명의 활동을 끝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예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집어 삼킨 군주 도동음률. 탐라선인이 우리에게

탐라군주 도동음률과 재밋섬

게 탐라치욕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교훈의 이름이다.
예술의 권력이 호위를 얻어 권력의 꽃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이다.
예술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메디치 가문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통치 기간은 르네상스 시대가 됐고 그들이 후원한 예술작품은 인류역사의 위대한 유산이 됐다.
그 반대로 정치가 예술을 탄압하고 그들의 입맛대로 방향을 제시하며 종속된 예술을 강요하기도 한다. 억압과 차별 그리고 권력의 호위를 얻어 사유화된 예술은 다른 예술가들의 소재가 돼 영원히 조풍거리로 세상을 떠도는 이름으로 남는다.
필자의 오늘날의 성장 이면에는 제주관악인 선·후배의 순수한 도움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재밋섬 사태

로 이제 제주도민은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의 명칭을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
중앙로 한 칸에 김광흠 대표가 이끌고 있는 극단 이어도의 주 활동연극 공간인 미에랑이 있다. 그의 꿈은 중앙로가 서울 대학로처럼 예술의 거리가 되는 것이며 이곳에서 오픈런(OPEN RUN)공연을 하는 것이다.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32년째 매일 밤 공연을 올리고 있다. 흥린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작품에 최적화된 음향시설과 무대, 객석 구조를 갖춘 전용관이 필수적이다. 공연이 되기까지 충분한 '리딩-워크숍-트라이 아웃'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누구보다도 기대했던 친구이다. 그의 평생의 꿈과 많은 예술가들의 염원과 기대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공간이었다. 그

꿈을 누군가 날려 버렸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 속에 이제는 예술가를 한 번도 후원 해보지도, 예술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도 제주 최고의 예술 기관을 깎아 내리는데 주저함이 없다. 제주도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제주 예술가들의 꿈과 중앙로의 영광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누군가 예술을 통해 그 어떠한 사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결단코 그 비참한 말로와 마주하게 될 것이며, 역사에 치욕의 이름으로 기록 될 것이다. 탐라군주 좌평 도동음률처럼 말이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위대한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투명성 때문이다. 설득력은 숨김없는 진솔함과 공감에서 시작된다.
제주도민과 예술가의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열린마당

대상포진 바로 알고 예방하자



강성택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여년 전 어머니가 생전에 원인을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다. 대상포진 증상을 몰라 뒤늦게 병원에 가면서 치료 후에도 평생 고생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잠복 상태로 있다가 스트레스, 과로, 암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등으로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나타난다. 초기 감기 몸살과 비슷해 두통,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나다가 피부에 띠 모양의 발진이나 물집이 생기면서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대상포진 진료환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2년도 1351명에서 2017년도는 2003명으로 약 48%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서는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50세 이상 혹은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에 접종 대상이 된다. 접종하면 예방 효과가 있고 대상포진이 발생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 가능성을 감소시켜 준다.
발진이나 수포 같은 피부 증상이 발생하면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아야 통증을 줄이고, 신경통 등의 합병증 발생을 낮출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

뉴스-in

도교육청 온라인 회의에 엇갈린 반응

질의 응답 시간 짧아 불만
○...제주도교육청이 교직원과 학부모,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회의를 두고 엇갈린 반응.
도교육청은 30일 '코로나19 대응 신속기 준비를 위한 교육가족 온라인 공감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해 개학 이후 감염증 대응 매뉴얼, 교육과정 운영 등을 안내했는데, 첫 시도인 만큼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는 평가.
하지만 1시간 가량의 회의 대부분이 설명으로 이어지고 질의 응답 시간이 짧아 "소통이 아닌 통보"라는 불만도 제기. 김지은기자
어린이 해설사 3기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자연유산 어린이 해설사 3기를 공개 모집해 눈길.
도내 초등학생(4-6학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학교에서 공문으로 접수를 하거나 개별적으

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오는 4월 1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고순환 세계유산본부장은 "어린이 해설사 교육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수료증과 유니폼을 제공하고 세계자연유산 관련 행사에서 활동할 경우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한다"며 많은 지원을 당부. 고대로기자
위기가구 복지정보 한 곳에
○...서귀포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다양한 복지정보를 담은 '생생정보 희망소쿠리'를 제작해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민간사례관리 수행기관에 배부.
희망소쿠리에는 사별 후 처리해야 할 행정절차를 포함해 심리·상담지원, 생계안정, 일자리, 주거, 금융, 돌봄 관련 지원 정보를 알 수 있게 제작.
시 관계자는 "2018년 송과 세 모녀 사건 후 제작한 희망소쿠리는 사망신고를 하러온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있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사설

해외 입도객 잇따라 확진 점점 우려된다

해외 입국자들이 늘면서 당당히 코로나19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지난 27일 국내 신규 확진자 146명 중 해외유입 사례가 41명입니다. 이날 하루 해외 입국자 중에서 감염된 사람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물리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을 뛰어넘어 해외 입국자 증가로 인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을 뛰어넘어 해외 입국자 증가로 인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을 뛰어넘어 해외 입국자 증가로 인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은 제주만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경우 주말 사이 발생한 신규 확진자 4명 모두 해외 입국자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당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기야 정부도 해외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의무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주 입도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제(29일)는 해외 입도객 중에서 아홉번째 확진자(남미 유학생)가 나왔습니다. 최근 6일동안 발생한 확진자 5명 모두 해외에서 온 입도객입니다. 미국 유학생 모녀와 접촉한 사람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지역감염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학생 등에서 이뤄진 접촉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희생자" 첫 인정

제주4·3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뒤 평생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후유장애자가 처음 '4·3희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가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 고통 속에 살아오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을 받은 사례에 대해 '희생자'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과거에는 비슷한 이유로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처음 희생자 인정을 받은 송모 할머니는 1949년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아버지가 무장대 습격 당시 숨지는 모습을 목격한 이후 평생 악몽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총상이나 창상, 고문 등의 외상 확인에 의한 후유장애자 중 하나로 희생자 인정을 받았으나 송 할머니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후유장애자의 희생자 인정 사례로 기록된 겁니다. 4·3을 겪은 세대들중 여전히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적지않은 상황에서 이번 인정은 의미가 큼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유족 7606명 등 7696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희생자로 인정된 90명은 사망자 34명, 행방불명자 20명, 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5명입니다. 총상·창상 피해자 대부분인 후유장애자 31명 중 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자입니다.

부 고
문경복(제주특별자치도청 부이사관·JTP협력관) 어머니 경주김씨 숙자(향년 86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29일 21시 33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3월 31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4월 1일(수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6분향실
▶장 지: 선흘리 선영
아 들 문 경 복 며느리 고 영 복
경 호 백 수 진
경 국 김 민 경
딸 문 선 영 사 위 강 수 영
미 영 필 슈 박
순 영 영
손 자 문 재 필 한 훈
준 필 강 준 희
정 필 선 준 의
손 너 문 지 애 한 시 우
지 은 한 서 윤

※ 연락처 : 문경복 010-2636-5161
문경호 010-2693-9200
문경국 010-3869-9644

부 고
문창완(태평목장) 어머니 제주고씨 여순(향년 84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29일 11시 15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3월 31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4월 1일(수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소길리 선영
남 편 문 광 호(故) 며느리 양 경 혜
아 들 문 창 완 인 흥 강 명 속
인 흥 인 성 박 제 형
손 자 문 경 필 손 너 문 소 연
승 건 소 영
승 찬 승 연
손 부 조 수 경 지 영
연 지 승 미

※ 연락처 : 문창완 010-4147-3367
문인홍 010-3909-6864
문창용 010-2693-2679
문인성 010-3639-1737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서귀포시정 소식
운영차 수시단속 점검반 운영 알림
○ 운영기간 : 2020. 3월 ~ 11월 / 월 2회
○ 단속대상 : 경유차(매연)
○ 단속장소 : 서귀포관내 (교통량이 많은 곳)
○ 측정장비 : 매연 측정 비디오 카메라
○ 문의전화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 760-2927)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모집 알림
○ 모집기간 : 2020. 3. 20(금) ~ 4. 6(월)
○ 모니터링단 구성 : 8명 (부모 4명, 보육·보건 전문가 4명) - 2인 1조(부모+전문가) 1:1 구성으로 월 2회 이상 어린이집 방문
○ 활동기간 : 2020. 4월 ~ 12월 / 9개월
○ 활동분야 : 건강, 급식, 위생, 안전 등 4개 분야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 (seoulisu9@korea.kr), 우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접수 및 문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760-2591 ~ 2593)